

여야, 본회의에서도 날 선 공방 이어가

민주·한국 원내대변인 의사진행발언 대결

문희상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동의안 '비준동의안' 등 16개의 를 열고 '민식이법'과 '파병연장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들은 예정된 법안의 처리가 끝나자 의사진행발언으로 국회 운영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일방적인 감감의 사진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물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본회의가 교섭단체의 합의로 진행되던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님이 정확한 발언으로 전국민 앞에서 사과말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4+1협약체'의 예산 수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4+1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한발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된 예산

안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과 관련한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잠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국익을 위한 의사진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 국회의장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당의 원내대변인의 발언 중이나 발언 후에는 서로 상대 당을 향한 아우와 고성아 오갔다.

양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청취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지사지해달라”면서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언급하며 “진실은 협상 당사자들과 하늘과 땅이 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맞을린 심재철號, 한국당

원내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창구 역할... 재선 맡을 듯

5선의 비박계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예산안 등 팽팽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협상에 나선 원내지도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강석호-이장우, 김선동-김종석 조를 꺾었다. 유기준-박성중 조는 1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었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각 후보자 2인이 1주가 돼 동반 선출한다. 이에 따라 심 원내대표는 3선의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과 라임메이트로 출마했다.

원내지도부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단으로 구성된다. 또 원내대변인이 원내 소통을 담당하면서 원내지도부를 돕는다.

5개월가량의 짧은 임기지만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총동 당시 벌어진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국당으로서는 심 원내대표 임기

기간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기본적인 의사 일정부터 안전처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협상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협상력과 투쟁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선 의원이 맡아왔다. 현재 당내 재선 의원으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선동 의원과 장제원·홍철호·박대출·김태홍·주광덕·윤재욱·염동열·김태홍·박대출·함정규 의원 등이 있다. 이중 주광덕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 염동열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등 당직을 맡고 있다.

경선 기간이 짧았던 만큼 원내지도부 구성 준비는 완료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함께 첫 협상 테이블에 앉은 만큼 인선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선임과 관련해 “재선 급에서 좋은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박지원 “김우중 별세, 또 한분의 큰 별 떠나...DJ와 각별한 관계”

“DJ, 김우중 회장 신임”

박지원 대한신당(가칭) 의원은 10일 김우중 전 대구그룹 회장 별세 소식에 “또 한분의 큰 별이 떠나셨다”고 애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하신 관계였으며, 야당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당시 최종현 전경련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동유럽 자동차 시장 개척 차 출장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이 당사 귀국해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며 김 전 대통령과 김 전 회

장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당시 대변인이었던 제가 IMF 외환위기 극복에 수출이 중요하니 귀국하시지 말라 했더니, 혹시나 밍보일까봐 안절부절, 자정이 넘어서까지 집으로 전화하던 정중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김 전 회장을 신임해서 전경련 회장으로 피선된 김 전 회장의 말씀을 많이 참고했다”며 “대기업 간 구조조정에도 (김 전 회장의) 견해를 중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하늘나라에서 김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투표권 18세로 낮추자”

“핀란드서 34세 총리 탄생했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핀란드에서 34세 총리가 탄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 나이가 만 40세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만 25세 이상”이라며 “청년 정치가 가능하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30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은 만 20세엔 출마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치에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역”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저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위해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